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어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구현되도록 나눔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새해에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은 범보시 운동과 나눔 성금 모금을 통한 자비실천 캠페인을 지속적 으로 전개한다. 또 '나눔단체'라는 코너를 마련해 나눔활동을 펼치는 단체의 활동을 취재해 소개하고,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소개할 예정이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의 성금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 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봉사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 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명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소개한다.

♥ **나눔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중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험을 시켜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창배 화백 지상 선목회전** 담원 김창배 화백이 보시한 선목회 30점의 지상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 전달한다.

'나눔 성금' 보내주시분

동방암신도회 - 551,600 김상사-128,910 울산지원-258,940 광명선원-2,122,590 이계권-50,000 이현이-50,000 반여3어린이집-700,000 박해석-818,940 총 4,680,980원 총 누적금액 34,346,120원

나눔의 저금통 회수합니다

본사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종단·시민단체 성금 모금·현지 구호활동

12월 26일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 및 해일 피해 구호를 위해 불교계가 발벗고 나섰다. 이번 지진·해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 9개국에서 모두 6만여 명이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수록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조계종은 피해를 당한 국가 및 국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국민적 지원을 호소하는 총무원장 담화문을 12월 27일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와 국민들이 하루속히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하며, 2천

만 불자와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호소한다"며 "정부도 피해국의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열린 총무원회의를 통해 종단차원의 적극적인 성금모금을 결의하고 피해국가 대통령에게 위로전문을 보내는 한편, 1월중 피해국가 대사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성금모금 동참 협조공문을 전국 교구본사에 발송했으며, 전국 각 사찰에서 진행되는 제야의 타종 행사 시 재난구호 성금모금함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모금활동을 통해 접수된 성금과 구호용품은 추후 각국 대

관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2월 29일 총무원회의를 열고, 전국 사찰에서 남아시아 돕기 성금을 모금하기로 결의했으며,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남아시아 돕기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할 예정이다.

진각종(총무원장 효암)은 12월 31일 종립 위덕대에 유학중인 스리랑카 실라 스님을 현지로 파견해 피해복구성금 시안중에 전달했다. 또 12월 27일부터 1월 27일까지 스리랑카 이재민 피해복구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국 심인당별로 전개하기로 했다.

구호를 위한 불교계 NGO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한국JTS(대표 유수)는 27일 한국 주재 태국대사관, 28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주재 대사관을 방문해 각각을 방문해 2,000달러를 전달했다. 또한 28일에는 스리랑카 아리아라트 네 박사가 운영하는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본부에 5,000달러를 기증했다. 인도JTS도 기술학교 학생들과 마을 리더 15명이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기로 결정, 28일 남인도 타밀나두주로 출발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은행계좌 및 휴대폰 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해 모금활동을 벌인 뒤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를 통해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본사동참 본사는 29일 조계종 사찰부에 성금을 전달했다.

문의 02)278-3417 재가연대 한편 본사는 12월 29일 조계종 사찰부에 동남아시아 지진피해성금 133만 원을 기탁했다.

남동우·유철주 기자

“작은보시로 많은 장병들이 불법을 만납니다”

나눔단체 향지모임 11년째 군포교



태풍부대 군법사원에 성금 전달하는 모습.

“군법당에 나오는 불자의 98%가 처음 접하는 사람입니다. 학생회 활동한 사람은 2%밖에 안됩니다”

경기도 최북방 연천지역 향지모임(회장 박미영) 회원들은 항상 누구를 만나도 군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1년간 경기도 북부지역 군 법당에 나오는 장병들의 어머니로 살아온 향지모임 70여명의 회원들은 회비전액과 수산 물판매, 일일차집 등으로 모은 기금으로 현재 5사단과 28사단 20여곳의 군 법당

을 찾아다니며 불자 장병들에게 떡국, 초코파이, 커피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군 법당 건립, 부처님 개금불사는 물론 음식물을 후원한다. 지역 내 백혈병 어린이 지원, 무의탁노인 돌보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불교교아원 김장보시 등의 활동도 열심이다.

연천군 전곡읍에 향지모임의 씨앗이 든 것은 1993년. 군사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살행을 하자'고 부처님 전에 발원한 회장인 박미영 총무 명공주 보살은 군법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대대법당을 찾아가 법당을 청소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부러다. 98년 결성된 향지모임은 현재 후방의 장병가족과 군 포교에 뜻있는 불자들을 상대로 후원자를 찾고 있다.

후원회원은 매달 초, 향, 차등의 법당 사용물품이나 보시금을 보내주면 된다. 문의 031) 832-0719.

김원우 기자

태풍부대 신병교육대 법당 건립 도와주세요

“70년대 창고로 쓰이던 건물을 개조한 법당이 비단 오렌 물로 흥건했습니다. 천장은 곰팡이가 슬고... 안되겠다 싶어 아무런 대책없이 공병대에 부탁해 건물을 부서버렸습니다” 태풍부대 군법사원 원웅 스님은 지난

해 10월부터 강당 한 칸을 빌려 만든 임시법당에서 답답하게 신병교육대에 법당이 없는 사연을 들려줬다. 매주 인근 포병부대 불자장병을 함께 300여명이 찾는 태풍부대 신병교육대 '문수법당'은 50평 규모이다 보니 함께

법회를 보기도 힘들었다.

100평 규모로 5월경 완공예정인 태풍부대 신교대 법당은 현재 도선사와 군승단의 800만원 후원으로 기초작업에 이어 철골조가 올라간 상태다. 019-615-8114.



꼭 채운 '나눔의 손길'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동참한 불자들이 보내준 나눔 저금통이 수북하다. 사진은 동전으로 꽉 채운 원숭이 저금통을 본사 나눔의 손잡기 담당자들이 털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원 기자

나눔의 손잡기 <등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 인터넷 홈페이지 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애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j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장 대행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화: 사무처(031)470-3100
팩스: (031)470-3116
홈페이지: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평읍 무극 4구 산 5-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064-727-3100 FAX: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062-373-8801 FAX: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053-767-3100 FAX: 053)765-1600
- 충청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055-345-9900 FAX: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5-744-1321 FAX: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041-852-9100, 9102 FAX: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043-259-5599 FAX: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033-651-3003 FAX: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061-284-1771 FAX: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054) 555-8871 FAX: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시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1-718)460-2019 / FAX: (1-718)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1-703)560-5166 / FAX: (1-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1-323)766-1316 / FAX: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1-847)674-0811 / FAX: (1-847)674-2280
- CANADA (캐나다 지원)
- Toronto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1-416)750-7943 / FAX: (1-416)701-1359
- Vancouver (밴쿠버 지원)
14069 104 Avenue Surrey, B.C.V3T1X4 CANADA
TEL: 1-604-582-8234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54-11)4921-9286 / FAX: (54-11)4921-9286
- Tucuman (투쿠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49-(0)2131)969551 / FAX: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66-2)391-0091